



팀 아홉

백상윤 · 김지민 · 김민찬 · 김범석 · 김수민  
김예지 · 박태우 · 정민지 · 송민경

## 함께하는 과정에서 더욱 큰 힘을 얻었습니다

프로그램: 제11회 SW개발 공모전(피우다프로젝트) 2023.10.06.

# ICT컴플렉스와 함께 신기술 기반 사업의 성공을 향해

다양한 ICT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2023년 경기XR아카데미에서 처음 모인 팀 아홉은 확장현실을 기반으로 다양한 재난 상황을 체험하고 탈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하고, 경기 메타버스 해커톤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이어 단순 공모전을 넘어 사업화 지원까지 연계되는 ICT컴플렉스 제2회 SW개발 공모전(피우다프로젝트)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성동구청 시범 적용 추진 대상에 선정되었다. 경진대회마다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며 콘텐츠 개선에 최선을 다해온 팀 아홉은 성동구청 시범 서비스 역시 팀원들의 단합된 역량과 ICT컴플렉스의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마치고, 2025년 법인 설립과 성동구청 실서비스 계약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확장현실로 재난을 미리 체험하고 극복한다

팀 아홉은 모바일 게임과 VR 콘텐츠 개발 기업을 운영하는 백상윤 대표를 포함해 다양한 ICT 분야에서 활동하는 아홉 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이들이 운영하는 확장현실(XR) 기반 재난 탈출 체험 교육 프로그램 'ResQ' 프로젝트는 백 대표와 송민경 등 초기 '넘버원'이라 불린 팀 멤버들이 2023년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경기XR아카데미에서 확장현실(XR)을 체험하고 미래에 더 큰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기술이 되겠다고 확신한 데서 시작되었다.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망사고를 떠올린 이들은 가상 세계에서 다양한 재난 상황을 만들어 체험하고 탈출 훈련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로 하고 ResQ의 첫 작품인 침수탈출 훈련 콘텐츠를 기획했다. 짧은 시간에 처음 만드는 VR 콘텐츠였기에 여러 어려운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결과 경기XR아카데미 성과발표회에서 경기도지사상을 받았다.

이때의 수상을 계기로 팀 넘버원에는 박태우 등 인원이 더해지고 콘텐츠 개발에 더욱 매진해 경기 메타버스 해커톤에 참가했다. VR 전문기업과 전공 학과 등 쟁쟁한 팀들이 모인 해커톤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ResQ의 그래픽·사운드·교육 요소가 더욱 보완되었다.





### 실서비스 기회를 주는 피우다프로젝트 참가

이후 사회·공공문제 해결을 주제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실증(시범 적용)을 거쳐 사업화 지원까지 연계되는 국내 유일의 소프트웨어 개발 경진대회인 2023년 ICT복합플렉스 제2회 SW개발 공모전(피우다프로젝트)에 참가했다. 이 대회는 서울시 성동구 공공서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SW 개발을 목표로 했다.

“피우다프로젝트는 해커톤과는 또 다른 관점의 심사와 완성도를 요구하는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자체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실제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공모전인 만큼 구현 가능성과 사업성을 더 까다롭게 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대회 중에 실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으며 우리의 창작물이 정말 사업화가 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팀 멤버들은 피우다프로젝트에서 VR 콘텐츠를 들고 나온 유일한 팀이었다. ResQ의 VR 재난안전교육 콘텐츠는 실제 실습체험관보다 비용·시간·인원 측면에 장점이 있었지만, 공공기관이 원하는 요소를 갖추며 콘텐츠의 효용을 증명해야 했다. 이에 소방구급대원, 지자체 재난안전팀 관계자, 시민 청년회 등과 인터뷰를 통해 지자체에서 원하는 교육과 요소·형식을 파

악했다. 또 청년 그룹이나 소방서를 찾아다니며 시연하고 기존 교육이나 다른 VR 체험보다 만족스럽거나 부족한 점, 공공기관 도입 필요성에 관한 피드백을 받았다. 그 결과 ResQ는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성동구청 시범 적용 추진 대상 우수개발물에 선정되었다.

### 사업은 실전, 고객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얻다

성동구청 시범 적용 추진 대상이 되었지만, 막상 팀 내에서는 수익 없는 시범 운영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이때 ICT복합플렉스의 장창영 팀장과 오지호 매니저가 격려해주고 ICT복합플렉스 회원들에게 참여 인원 모집을 공고했으며, 앞서 XR아카데미에서 인연이 있었던 김예지와 김지민·김수민·정민지 등이 합류했다. 이후 시범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 김민찬·김범석이 차례로 합류해 지금의 팀 아홉 멤버가 모였다.

팀 아홉은 성동구청 관계자들과의 첫 대면에서 ResQ를 실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엔 많이 부족하고 진행이 어려울 수 있겠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이에 약 한 달간 기획부터 구성까지 전면 수정했다. 성동구의 특징을 살린 3D 레벨 디자인부터 초등학교가 좋아할 스토리와 캐릭터를 만들고 시를 활용한 내러

이션, NPC, 게임 요소를 넣어 새롭게 탈바꿈해 비로소 성동구청의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 장창영 팀장과 오지호 매니저가 피드백을 지원하고 ICT복합플렉스의 작업공간과 VR 기기를 다른 지역에서까지 받아 대여하며, 시범 서비스 전 공덕초등학교에서 시연할 기회를 제공한 덕분에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행착오를 줄였다. 그 결과 성동구청 시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팀 아홉은 이제 세계적인 XR 콘텐츠 제작사를 꿈꾸며 2025년 법인 설립과 성동구청 실서비스 계약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중인파, 선박안전, 건물화재와 완강기 등 효과적인 교육이나 대처가 어려운 재난을 재현하는 콘텐츠를 추가하고, 개별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함께였기에 어려움을 더 잘 헤쳐 나갈 수 있었고, 팀원들과 소통하는 과정이나 ‘내가 좀 더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해 만든 성과가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재미있어서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 자체로 끝나지 않고 실제 서비스 기회까지 주는 피우다프로젝트에 꼭 참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nipa*

66

개발공간부터 장비,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해주는 ICT복합플렉스 피우다프로젝트는 대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용화 기회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창작물의 사업화를 면밀히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99

